

순천 '녹색아파트' 10곳 중 8곳 음식물쓰레기 10% 줄었다

시, 2011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활동 평가 우수 아파트 선정 43곳, 탄소포인트제 가입률 20% 넘겨...전기 사용도 줄어

순천시가 올해 선정한 '우수 녹색아파트' 10곳 가운데 8곳은 음식물 쓰레기를 전년보다 '두 자릿수'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역 100세대 이상 140개 아파트 가운데 탄소중립 포인트제 최소 가입률(20% 이상)을 넘긴 아파트는 43곳으로 집계됐다.

순천시는 이들 아파트 가운데 올해 1~10월 에너지 감축률이 높은 10개 아파트를 선정해 '우수 녹색아파트' 시상했다. 상을 받은 아파트들은 총 34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이 상금은 아파트 내 공동시설 LED 조명기기를 교체하거나 나무를 심는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순천시는 지난 2011년부터 1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평가하는 '우수 녹색아파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수 녹색아파트는 전기·수도·도시가스 사용량 감축률,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감축률, 탄소중립 포인트제 가입률 등 5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최우수상에 선정된 금당우미1차아파트는 올해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전년보다 39% 줄였다. 수도(10.6%)와 가스(10.7%), 전기(2.9%) 등 에너지 감축률 부문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이 아파트는 상금 600만원을 받았다.

선행배달마을아파트와 연향금호아파트는 우수상에 뽑혀 각 5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연향금호아파트는 수도 사용을 전년보다 34% 줄였고, 선행배달마을은 수도(21.6%)·가스(11.5%)·음식물 쓰레기(10.9%) 부문에서 '두 자릿수' 감소를 나타냈다.

장려상에는 e편한세상 순천아파트·금당동신1차아파트·청미래3차아파트 등 3곳이 선정돼 각 32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탄소중립 포인트제 가입률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신대중흥S클래스2차, 왕지현대1차, 용당동아, 금당중흥1차아파트 등 4곳은 '지속상'을 받아 각 상금 210만원을 가져갔다.

추미숙 순천시 기후에너지과 담당자는 "시민의 약 7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 실현에 크게 도움이 됐다"며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해준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여수시(시장 정기명·오른쪽 다섯 번째)와 한국환경공단, 롯데케미칼, LG화학, 남해화학 등이 연간 1만t의 탄소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산업 폐플라스틱 재활용 전환'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보성군 고향사랑기부제 1년 앞두고 모금액 3억원 돌파

40~50대 기부자 기부액의 56%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에 사용

보성군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년을 앞두고 최근 모금액이 3억원을 돌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달 21일 기준 누적 고향사랑기부금은 3억 1126만원으로, 이달 들어 7500만원이 모금액 가장 많은 모금액을 기록했다.

보성군은 기부금을 내년 기업사업인 이동식 무장애 경사로 설치, 찾아가는 다문화 가족 소통 아카데미,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과 주민 복리 증진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전체 기부자 중 100만원 이상 고액 기부자는 24명, 기부 한도액인 500만원 기부자는 9명이다. 나이별로는 20~30대 기부자가 기부액의 27%,

40~50대 기부자는 기부액의 56%를 차지했다. 60대 이상 기부자의 기부액 비율은 16%였다.

기부자 거주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이 1133명으로 제일 많았다.

다음으로는 수도권인 서울·경기·인천이 872명, 경상도 333명, 충청도 130명, 기타 강원도·제주도 등이 84명으로 집계됐다.

인기 답례품으로는 녹두이 436건 주문으로 1위에 올랐다. 쌀, 보성사랑상품권, 키위, 배추, 녹차, 된장 등이 뒤를 이었다.

보성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은 모두 91개이다.

보성군 대표 쇼핑물 '보성물'에 입점한 70개 업체의 상품과 보성사랑상품권, 보성물 모바일 쿠폰, 별초 대형 서비스, 제암산자연휴양림 숙박, 울포해수욕장센터 이용, 대원사 템플스테이 등 지역 특색이 반영된 답례품이 준비돼 있다.

보성군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지난 1월 인구정책과를 신설했다.

보성군 직원, 농업 보성지점 직원들은 자매결연 단체인 광주시 남구, 울산시 남구 등과 교차 기부를 지원해 56000만 원의 기부 실적을 냈다.

또 보성군은 고향사랑 기부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감사장을 제작해 답례품 발송 때 함께 보냈다.

보성군은 연말 정산을 앞둔 12월 한 달간 10만원 이상을 기부하고 답례품을 선택하는 기부자들을 대상으로 50명을 추첨해 2만원 상당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물품을 줄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사는 지역 이외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e음(iloovegohyang.go.kr)과 농협 영업점을 통해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기부액 기준 최대 30%)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여수산단 '산업 폐플라스틱' 재활용 나선다

여수시, 주요 기업들과 협약

여수시가 여수국가산단 기업들과 '산업 폐플라스틱' 재활용에 손을 맞잡기로 했다.

여수시는 최근 시장실에서 한국환경공단, 롯데케미칼 첨단소재, LG화학, 남해화학 등과 '산업 폐플라스틱 재활용 전환 협약'을 맺었다고 27일 밝혔다.

이 협약은 산업계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며 2050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관협업을 통한 산업 폐플라스틱 재활용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된다.

협약에 따라 기업은 산업 폐플라스틱의 단계적 재활용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환경·사회·지배구조 개선에 나서는 ESG 경영에 동참하고 탄소발생량도 줄인다.

여수시와 한국환경공단은 기업들에 환경 안전 상담과 환경 기술 지원, 재활용산업 육성 등을 맡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여수시는 연간 약 1만t의 탄소발생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활용산업을 활성화해 일자리 창출도 꾀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가산단 입주기업들의 산업 폐플라스틱 재활용전환 참여를 지속해서 독려할 방침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의 과제 해결은 지자체, 공단, 대기업을 주축으로 지역의 친환경 정책 등을 선도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이번 협약은 민관이 함께하는 '탄소 제로 여수' 실현에 큰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구례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단 참여자들이 방한 조끼를 입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구례군 제공)

구례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35명에 방한 조끼 나눔

구례지역자활센터가 자활사업단 참여자에게 겨울철 방한 조끼를 나눠줬다.

센터는 저소득층 지역민의 자립을 돕기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자활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다빈바삭사업단, 사랑잔들사업단, 지리산농부사업단, 카페데드 등 8개 사업에 35명이 참여하고 있다.

센터는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한랭 질환 예방을 위해 이번 조끼 나눔을 마련했다.

양철승 구례지역자활센터장은 "자활 근로 참여자들의 건강과 행복은 우리의 최우선 과제"라며 "앞으로도 참여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곡성군 남부권 광역관광벨트 개발 속도 낸다

334억원 투입 산림관광정원 조성

곡성군이 정부사업을 확보하며 광역관광벨트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곡성군은 문체부가 추진하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지원 대상지로 선정돼 섬진강기차마을과 연계한 순환·확장형 관광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곡성군은 '인공생태형 산림관광정원 조성사업'에 334억원을 투입한다.

'인공생태형 산림관광정원 조성사업'은 곡성과

구례, 광양, 경남 하동이 간직하고 있는 고유의 경관과 문화를 토대로 광역관광벨트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섬진강기차마을과 섬진강동화정원을 연결하는 슈퍼트리를 비롯해 이야기 자원을 주제로 미디어 가든, 스토리씨드뱅크 등 전시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비 108억원을 투입해 섬진강 기차마을을 시작으로 대항강(보성강)까지 35km 구간을 역사이팅 생태 레저공간으로 구축하는 '레저케이션 관광스테이 확충사업'도 추진한다.

기차마을 유스호스텔을 '섬진강 레일스테이'로 만들어 부족한 숙박 인프라를 확보하고 섬진강 레저스쿨 프로그램 운영과 전략적인 마케팅을 통해 섬진강변과 대항강변을 레저이커의 메카로 육성할 계획이다.

레저 특화 관광지가 활성화되면 섬진강기차마을을 중심으로 체류형 관광지 실현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이 마무리되는 2027년까지 관광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일대 관광지를 연계 순환할 수 있는 미니기차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마련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한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곡성=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양시 2029년까지 생활폐기물 소각장 건립

내년 상반기 타당성 용역 마무리

광양시가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친환경 자원순환단지 설치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광양시는 최근 친환경 자원순환단지 설치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선정위원회에는 주민 대표와 전문가, 시의원, 관계 공무원 등 13명이 참여한다.

광양시 친환경 자원순환단지 설치사업은 오는 2029년 말까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위원회는 지난 11일 1차 회의를 열어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등을 심의했다.

광양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비 1억원을 들여 입지 후보지 타당성 연구용역을 발의 방침이다. 광양시는 오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입이 금지됨에 따라 친환경 자원순환 기능을 갖춘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소각시설과 각종 관련 시설 건립에는 1000억원 안팎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광양시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도 높이는 방안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고흥군, 소록도 앞바다에 참문어 산란·서식장

50억원 투입 2028년까지 조성

고흥군이 소록도 앞바다에 참문어 서식장을 조성한다.

고흥군은 해양수산부의 수산자원 조성 사업 공모사업인 '참문어 산란·서식장 조성'을 위해서 국비 25억 원 등 총사업비 50억원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공모 선정에 따라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에 걸쳐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해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 일대 186ha에 인공구조물로 제작한 '문어단지' 설치와 종묘 방류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지를 공모하고 학계와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선정위

원회의 심사를 거쳐 고흥군이 선정한 위치가 수온과 수심, 지질 등 모든 환경이 참문어 산란·서식장 조성에 최적지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군은 사업 시작과 동시에 조성 사업 해역을 수산자원 관리 수면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자율관리 공동체(관리 위원회)를 구성해 자율적인 규제 관리와 불법 어업, 어지 선박 차단 등 자체 감시 활동도 보인다.

고흥군은 사업이 종료돼도 자율관리위원회를 구성해 2029년부터 2033년까지 5년에 걸쳐 산란·서식장의 자율적인 관리 이용, 홍보 및 교육, 연계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지속적인 어장 관리 및 모니터링 등을 실시해 체계적인 사후관리 및 운용을 할 계획이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

고흥군 흥양현선생안 등 9건 향토문화재 지정

고흥군은 최근 흥양현선생안(興陽縣 先生案) 등 9건을 2023년 고흥군 향토문화재로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지정 고시된 향토문화재는 흥양현 선생안과 임진왜란 관련 공신의 고문서와 묘비, 병자호란 당시 순절한 인물 묘비 등 총 9건이다.

'흥양현 선생안'은 조선 시대 흥양현의 역대 현감 270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고흥군은 이번에 지정된 9건은 고흥지역 향토문화재로 지정 보호해야 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흥 양로원이 소장 보관 중인 '흥양현 선

생안'과 무열사 소장 '진무성 고문서 일괄', '송대립 묘비'는 전남도 문화재로 지정 신청해도 될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흥군은 앞으로 이들 문화재에 대해 추후 종합적인 학술 조사와 연구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 임진왜란 당시 활동해 전공을 세운 정걸, 송희립, 송흥연, 송덕일 장군과 신군안 의병장 묘비와 병자호란 당시 순절한 송침 장군의 묘비들은 조선 후기에서 근대기에 제작돼 세워졌다. 이들은 지역의 향토사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학술적 가치가 크다는 의견이 나왔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